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펜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되었거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에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 후



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면 I-140과 I-485가 동시에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펜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한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

■ 전문의 칼럼

최신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및 치료

PET Scan → 베타아밀로이드 확인 → Aduhelm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주사

PET Scan → No 베타아밀로이드 → 2년 후 재확인 PET Scan

근래에 미국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매 치료제를 허가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는 변형된 일종의 단백질이다. 이러한 변형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시키며 뇌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뇌세포의 사멸과 더불어 환자의 인지능력 또한 저하된다. 하지만 PET Scan으로 조기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되기 전,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초기에 진단하여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여 치매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지적 능력을 상실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 즉 기억력, 사고력 등 뇌의 능력이 떨어지는 모든 뇌 질환을 통털어 일컫는 말이다. 그 중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변형된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인지능력의 저하가 오게 되는 질병이다. 변형된 베타아밀로이드가 염증을 일으키며 뇌세포를 사멸시키고 뇌세포의 사멸과 더불어 환자의 인지능력 또한 떨어진다. 일단 치매 증상이 생기면 이미 베타아밀로이드가 오랜 기간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원인은 뇌 조직에 '베타아밀로이드'라 불리는 변이성 단백질의 축적과 신경섬유질의 다발성 병변에 의하여 생기는지 이러한 변형된 단백질과 신경섬유질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뚜렷하지가 않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약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 기존의 모든 약물은 베타아밀로이드 또는 신경섬유질과는 아

무런 관계가 없다. 뇌세포의 사망과 더불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호르몬의 감소가 오는데 기존의 모든 치매 약은 이 부족한 아세틸콜린 신경호르몬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만 한다. 원인 치료가 아닌 증상 치료다.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여도 베타아밀로이드는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인지장애 또한 계속 나빠진다.

반면, 아두헬 (Aduhelm)이라는 치매 치료제는 기존의 증상치료제와는 달리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뇌에서 제거 해 주는 약물이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이 시작되기 전, 특히 집안 내력이 있는 경우 뇌 PET Scan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베타아밀로이드가 확인 되었을 경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Aduhelm을 사용하여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 예방 치료인 것이다.

위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암을 일찍이 진단하여 치료하듯이 PET Scan을 주기적으로 사용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진단하고 또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하여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제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가 있게 되었다.

스템스통증병원 & PPP센터
박재우 MD
(714) 389-7000
4840 Irvine Blvd. #203
Irvine, CA 92620(시온마켓 옆)

